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을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을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70호 현대불교
2010년 2월 10일(음 12월 27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5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 나를 밝힐 수 있어야

더불어 밝아지고 싶어요

☞ 마음공부를 하면서 내 마음이 밝아지니 상대의 마음도 밝아지고 온 세상을 다 얻을 것만 같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나태해져서 그런지 어떤 때는 정말 내가 공부해 놓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고, 부끄럽지만 사실 저의 정성이 부족해서 조상들이 도와주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촛불제에는 정말 저와 저의 가족, 그리고 더불어 조상님이 다 같이 밝아지기를 발원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할까요?

☞ 여러분은 '나는 중생이기 때문에 못났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 소린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원통에서 나오는 것 원통에다 되놓는다면 스스로 굴러서 스스로 자동적으로 열렬하게 나투면서 돌아갑니다. 어머니 만날 때도, 자식 만날 때도 그렇게 여여하게 만나도 나투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괜히 조상의 탓이니 뭐니 하고 바깥으로 꼬달리면서 부모는 살아서도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죽었을 때도 곱감끼기만 생각하고 자식들은 부모 탓을 하죠. 영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겁니다. 못된 마음이지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 원토록 그 어머니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어디 깨질세라, 부딪힐세라, 죽을세라, 못 먹을세라, 어떻게 굶지는 않았나, 몸이나 아프지 않나 걱정해 주시는 아리따운 그 한 방울의 눈물을 어찌 그렇게 소홀하고 가볍게 보십니까? 조상의 뜻을 하더니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자기 탓인 것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낫기 때문에 부딪침도 오는 것이지, 자기가 나지 않았다면 무슨 부딪침이 있으며 무슨 만날 게 있으며 무슨 상대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좋은 불법을 그렇게 가볍으로써 어지럽힌다면 일체제불의 뜻이 그냥 허무하게 어지럽혀질 것입니다. 고상하고 여여하고 신비하고 당당한 그 법을 그렇게 모르다니요! 여러분이 부처인 것이요, 그대로 부처 자리에 한자리 한 것이요, 그대로 부처님 법을 옹(用)하는 것이요, 그대로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견성성불이지 어디 따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마음을 두고서 항상 가로 그어 놓고 세로 그어 놓고 자꾸 걸리는 거예요. 가로 그어 놓으면 자기가 거기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애를 쓰고, 세로 그어 놓으면 세로 그어 놓는 대로 빠져 가지고 또 일어나질 못해서 애를 쓰고, 참 답답합니다.

깨닫고 안 깨닫고 모든 걸 놓고 가세요. '빨리 하겠다. 이게 느리다. 아, 조금 되더니 아주 캄캄하잖아!' 이러는데요, 캄캄한 것도 놓으세요. 왜? 캄캄하고 환한 걸 둘 다 놓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캄캄하고, 꺼지고 썩지는 거를 두 개를 사용 안 한다면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들어가면서 불 켜시죠? 그리고 그 방을 쓰지 않을 때는 불을 다 끄고 나오신단 말입니다. 이런 작용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작용이 바로 꼬달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여여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불제라는 것은 이 모든 유(有)의 법이

마음의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나 자식을 위한다면, 내 육신 안에 생명들이 잔뜩 들어서 더불어 같이 살고 있으니 그대로 공했다는 사실을 알고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남을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서 나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촛불제를 하면서, 또 마음으로 항상 불을 밝히면서 생활 속에서 닥치는 일체를 재료로 삼고 행주좌와로써 참선을 하실 수 있다면 더불어 밝아지는 겁니다.

지금은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

신다면, 생활을 재료로 삼아서 항상 하실 수 있다면 바로 아래 자손들은 마음이 화해서 바뀌고, 바뀌면서 화하게 됩니다. 그 몸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의식들이, 업식으로 남은 의식들이 다 착해지고 밝아지고 보살로 화해서, 말로 하거나 육하고 때리지 않아도 스스로 밝아짐으로써 일이 풀리고 돌아가신 부모의 영령들도 밝아져서 스스로 천도가 되죠. 자기와 더불어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광대합니까.

만약에 돌아가신 조상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공부 못한다거나 열심히 뛰는데도 안된다거나 이렇다면 그것도 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

있을까요?

☞ 이 통일을 하는 주체가 사람이라고 보지만 우주 삼라만상에 다 통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지금으로 치면 회의를 해서 적합하다 할 때에 하게 된다는 말도 됩니다. 그해야 어느 사람이 주어져서 그 사람이 움직여지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아주 많이 팽창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하니까 3차 대전이 벌어질 거에 대한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 그러면 이쪽에서 3차 대전을 일으킬 리는 없으니가 저쪽을 그렇게 좀 나누었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30여 년 전 얘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제자들더러도 "어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느냐?" 이런 얘기를 하곤 했죠.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걸 잘못 생각을 하면 또 안 됩니다. 잘 생각을 한 뜻이라면 우주간 하고도 통신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통신이 돼서 이 만물하고도 이게 통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거 소소한 거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사람을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르바초프면 고르바초프, 뭐 누구를 어떻게 잡는다 이러면, 즉 말하자면 모든 하는 일들에 대한 법 출기를 갖다가 그러로 대죠. 모자라는 거를 채우면서, 그래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따로 이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잘못하면 미친 사람으로 됩니다. 이게, 잘못 말을 하게 되면 미친 사람, 돈 사람으로 생각 되게끔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빨리 서둘러서 꼭 이걸 해야 된다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위태합니다. 아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위태한데 그 위태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공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아니 삼분의 일은 공해로 인해서 생기죠. 지금 원기 그 자체라고 할까, 너무 이렇게 압축이 돼서요, 지금, 오존층이라고 할까 이게 자꾸 압축이 되니까 얼음이 만약에 다 녹는다고 해 봅시다, 평평어리는 파산이 되지,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잘들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공부를 해서 그 모든 것을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마음, 이 자리밖에는 우주하고 통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풀려나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가고 하는 문제들도 지금 우리들의 마

26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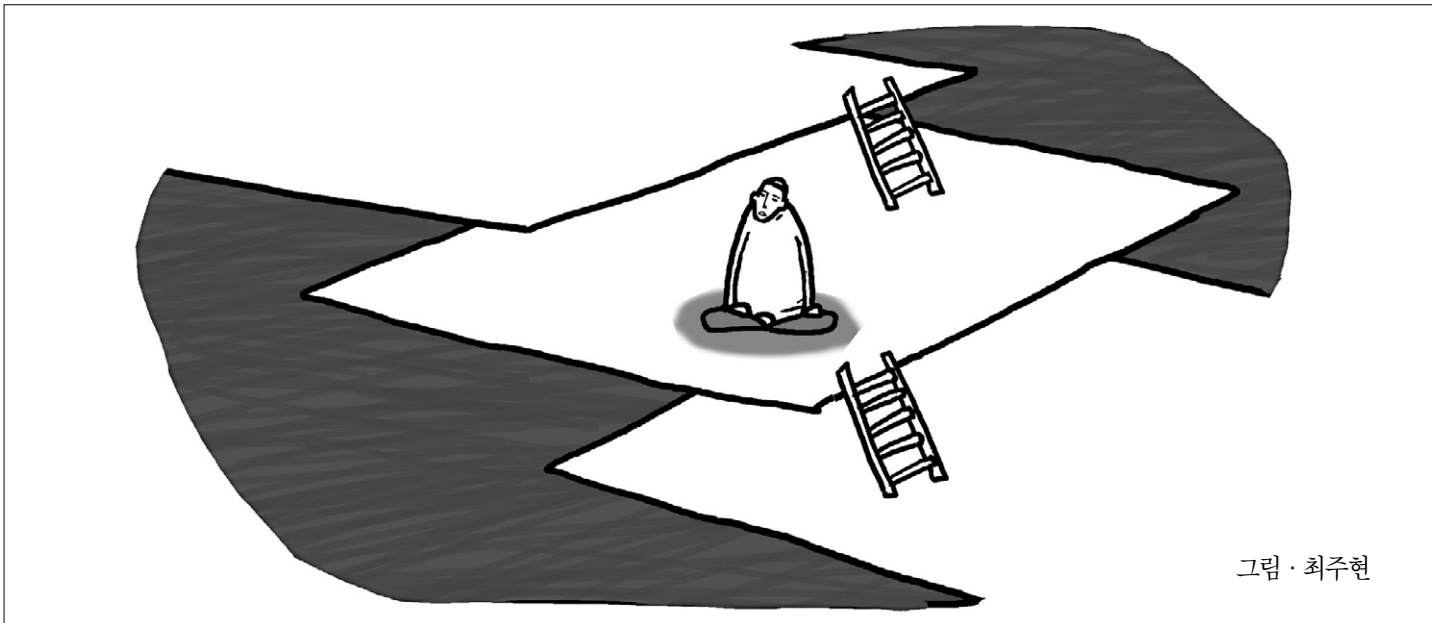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 무(無)의 법에서 내가 형성되고 살아나갈 때에, 캄캄했던 일을 다시금 내 깊은 마음으로 인해서 두뇌로 밝은 불리 지혜를 내기 위해서, 또 항상 뿌리가 깊은 밝음을 스스로 밝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촛불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걸 들고 켜고 하는 데에 방편이라고 하지마는 방편이자 진실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는다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을 살게 되고, 현실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차원에 따라서 과거도 현실이고 미래도 현실이요, 오늘, 영원한 오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라는 마음이 있고 자식이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전기가 가설돼 있듯이

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자체가 부처님 법이요, 우리들 법이 부처님 법이요, 부처님 법이 우리 법이요, 우리네들 육신이 부처님의 형상이요,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대무변하고 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양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밝히면 둘 아녜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밝혀야만 되는가. 자기가 나온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안의 선풍기를, 정신계를 도저히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육신이 태어났으면 정신이 다시 태어나야 진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나가서 어떠한 문제를 저지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별의별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불을 밝히고 마음공부를 하

도 본인이 촛불을 들고서 밝아지게끔 만들어 주거나 부모가 해 주거나 이런다면 그건 훨씬 더 물리가 터지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조건이죠. 내가 해 놓지 않고 내가 무엇을 받을 게 있었습니까? 내가 해안만이 한 것만 큰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제라는 것은 아주 못났든 잘났든 또는 업보가 많은 적든 하여튼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할 텐데...

☞ 저의 할아버지께서 나이가 벌써 팔십이 넘어 구십이 돼 가십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면, 살아생전에 고향을 꼭 보는 거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빨리 통일이 돼서 저의 할아버지 같은 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3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아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첫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2월 25일까지

◆ 개강일시 : 2010년 2월 26일 매주 (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교 교육과정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출강 및 통신

2010학년도 제19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불교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19년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0학년도 제19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 ④ 사찰·포교원 등복지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교육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 사 과 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 (교과목 및 범음·범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0년 2월 25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 (우편·팩스·메일 접수가능) 부산교육원 ☎ 051-466-1959 / 제주교육원 ☎ 064-751-1959

입학안내 02)733-1959
720-1836

한국 불교 법사 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팩스 02)737-5305